소규모 학교살리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 몫'

서귀포시, 2012년부터 공동주택 건축 등 통해 학생 유치
현재 143세대에 학생 182명 거주… 총 1013명 유입 효과

서귀포시가 2012년부터 추진중인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이 농어촌 마을에 젊은 인구를 유입시켜 학생수 감소를 막고, 침체된 마을공동체 회복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 통학구역 마을에 공동주택을 짓거나 빈 집을 정비, 학생을 둔 가정에 싸게 임대해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서귀포시 관내 60개 초·중등학교 중 소규모학교는 30개교로 절반을 차지한다.

서귀포시는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추진 후 현재까지 수산1리·신산리·성읍1리·무릉2리·신풍리 등 8개 마을에 공동주택 8동(59세대)을 짓고, 19개 마을의 빈집 84세대를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들 143세대의 주택 건립과 정비를 위해 총 40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공동주택 건립은 희망하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신청하면 건축비로 60% 범위에서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빈집정비는 보조율 70% 범위에서 가구당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구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의 경우 무릉리와 시흥리 2곳에 공동주택을 짓고, 신흥2리와 하례1리의 빈집 2세대를 정비해 22명의 학생이 유입됐다. 서광동리에 짓고 있는 공동주택은 연말까지 완공 예정이다.

서귀포시 지역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신축·정비된 주택에는 현재 학생 182명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면서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사업 추진 후 현재까지 총 1013명의 학생유입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부지와 자부담금 확보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토대로 자구노력을 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 마을에 학생을 유치해 활기찬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일제 모집

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외 5개 수행기관별 10일까지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외 5개 수행기관별로 필요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수행인력 일제 모집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면접은 일제히 13일 각 수행기관에서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전담사회복지사 18명, 생활지원사 285명이며 전담사회복지사인 경우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생활지원사인 경우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운전 가능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훌륭한 인력들을 수행기관별로 연내에 배정된 규모로 빠짐없이 채용해 내년부터 어르신 욕구에 맞게 안전·안부확인, 일생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생활교육, 민간자원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물질 나가는 해녀들 초겨울 차가운 바람이 다시 시작된 5일 제주시 도두동 해안가에 한무리의 해녀들이 차가운 바다로 물질을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가족친화 재인증기관' 선정

2022년 11월까지 인증 유효

제주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가족친화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부담 없는 유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금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 ▷'일요일' 가정의 날 지정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북카페 운영 ▷직원 체력 단련실 운영 등 일과 가정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 된 이후 지난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고대로기자

성산읍 신청사 신축

지하1층·지상3층 규모

성산읍(읍장 강승오)이 지은지 38년이 지난 성산읍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의 새 청사를 신축한다.

성산읍은 내년 신청사 실시설계비 4억원이 반영돼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청사 신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사를 짓기에 앞서 공유재산 심의의결, 중앙투자심사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로, 총 사업비 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982년 건축된 성산읍 청사는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민원인 대기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신축 민원이 제기돼 왔다. 문미숙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중위소득 4인 기준·기본재산 공제액 등 확대 조정
부양비 부양률도 혼인 여부 상관없이 일괄 10%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4인 기준'이 기존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으로 인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재산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32.4% 늘어난다.

아울러 아들·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률도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1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017년 2만624명, 2018년 2만3157명, 올해 10월 기준 2만4204명으로 증가 추세다. 인구당 수급자 비율도 2017년 3.13%, 2018년 3.47%, 올해 10월 현재 3.6%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화된 제도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보장성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공동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빈곤과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급여 신청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복지정책과(064-710-2817),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케이크·다소비 수산물 집중 지도점검

제주시, 유통기한 등에 중점

제주시는 연말연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케이크 제품과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올해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성탄절 대비 케이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내 제과점, 수산물 코너 등 60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보존 및 유통관리 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등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이다.

또 식중독 우려가 높은 크림 도포 케이크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인 생식용 굴, 김, 고등어, 넙치, 농어, 조피볼락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중금속 등의 적합여부 판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총 40개소를 점검해 건강진단 미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겨울철 다소비 식품 7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에 참여할 농가 모집

제주에서 생산! 제주에서 소비!

한살림제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유통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사업에 생산자로 함께할 농가를 모십니다.

2020년 4월 로컬푸드 매장 개장을 목표로 제주도내 로컬푸드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소규모 영농으로도 일정 수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상시
■ 모집대상
제주도 농업인 누구나(중소농, 고령농, 청년농, 귀농 등)
■ 참여조건
제주도에 거주하며 제주도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 문 의
한살림제주 : 064-747-5988, 070-4940-3964
※ 전화주시면 교육이수 등 참여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로컬푸드 운동과 함께할 인재를 모십니다.
로컬푸드 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한살림제주로 문의 바랍니다.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본 광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델 발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 2019년 12월 15일(일) 08:00
장 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팀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 인 원 :선착순 40명
• 비 용 :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준 비 물 :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 산행코스 : 평화로 – 북돌아진오름 – 괴오름 – 평화로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가입
1999년 8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사팡마(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네팔 히말라야 로체(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2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베링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훈장 맹호장수훈(체육훈장 맹호장 제51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

축 합 격

제30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강민지 강서은 강순화 강양순 강주천 고광철 고영림 고은정 고자영 구민희 김동률 김미애 김미선 김병희 김보나 김순정 김여순 김윤아 김정길 김정아 김준호 김한철 곽수현 권바롬 문춘형 박종선 변윤희 부금미 부윤미 소현정 송은영 신윤경 안미경 안현정 안해경 양선희 양윤정 양은혜 양인영 오영애 오정심 오택근 이미자 이정훈 이혜옥 임가영 임은향 정애리 정현주 조지영 최우봉 한성훈 한효원 함대인 함희복 현명식 현승운 현윤지 황경주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합격자
강리희 강문희 강서영 강유숙 강인형 강차미 강채연 강홍임 김선영 권승미 서영란 신선아 임정주 장선미 장원실 한상진 현준호 홍은주

"합격을 축하드리오며 앞날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탐라고시학원 교수, 동문 일동 -

12월 2일 개강
탐라고시학원
☎ 743-4393, 010-6693-1941